

잡아함 101.인간경

날짜: 6월 21st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730>

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에 계시면서 세간에 노닐으시다가 우카타 촌과 시티비아촌 중간에 있는 어떤 나무 밑에 앉아 낮 선정에 들어 계시었다. 때에 어떤 도나종족의 바라문은 그 길을 따라 오다가 부처님 뒤에 와서 부처님의 발자국에 일천 개 바퀴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 있는데, 그 바퀴살은 가지런하고 바퀴모통은 동그람하여 모두 아름답고 원만한 것을 보았다. 그는 ‘나는 아직 인간의 발자국으로써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. 이제 이 발자국을 따라 그 사람을 찾아 보리라’고 생각하고, 곧 발자국을 따라 부처님 계신 곳에 왔다. 그는 세존께서 어떤 나무 밑에 앉아 낮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, 엄숙한 얼굴은 세상에서 뛰어나고, 모든 기관은 맑고 고요하며, 마음은 극히 조용하여 가장 잘 다루어졌으며, 바른 관(觀)은 완전히 이루어져서 빛나는 풍채가 의젓하기는 마치 금산과 같은 것을 보았다. 그는 그것을 보고 곧 부처님께 여쭙었다.

“당신은 하늘 사람이십니까.”

“나는 하늘 사람이 아니다.”

“그러하오면 혹은 용이나 약사·간다르바·아수라·가루라·긴나라·마호라가·인비인(人非人)이십니까.”

“나는 용이나 인비인도 아니다.”

“만일 하늘사람도 아니요 용도 아니며 나아가 인비인도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.”

그 때에 세존께서는 계송으로 대답하시었다.

하늘사람·용·간다르바
긴나라·약사

착함이 없는 아수라
모든 마호라가
인비인들은
다 번뇌로 말미암아 생겼느니라.

그러한 번뇌의 샘을
나는 이미 아주 버리고
이미 부수고 이미 없애기
마치 분타리 꽃과 같나니

그것은 비록 물 속에 났으나
일찍이 물에 집착한 일 없나니
내 비록 세상에 났으나
이미 세상에 집착하지 않느니라.

수 많은 겁 동안 가려 보았으나
순수한 고통으로 즐거움 없고
일체 세간의 하염있는 행
그것들은 모두 나고 멸하였으니

그래서 번뇌 떠나 움직이지 않고
이미 모든 칼과 가시 뽑아 버리어
나고 죽는 즈음을 벗어났나니
그러므로 <붓다>라 이름하노라.

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말씀하시자 도나종족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
듣고 기뻐하면서 길을 따라 떠나갔다.